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우수” 획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이하 공단)이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340개 대상으로 주관한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자치구 공단 중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자치구 공단 평균 점수인 86.25점 보다 2.39점 높은 점수로 전국 자치구 공단 37개 중 “7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특히, 고객 및 윤리경영 분야에서 95점(1위), 공공성 증진 분야에서 93점(3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경영성과 부문은 서울시 자치구 공단중 상위 수준인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이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관리업무 중심의 조직을 현장업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영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성과주의 시스

템을 정착하여 직원 참여경영을 실현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이뤄냈으며, 사업장별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여 서비스 차별화를 추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료시설 무료·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사적 참가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성환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중·장기적 성장 모듈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화합하여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본에 충실하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